
	꿈 · 땀 · 보람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	전주용흥초등학교 (063) 227-4636
	교내 수족구병 발생에 따른 예방 안내문	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최근 본교에 수족구병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바, 수족구병 예방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감염병 관련 출석인정 안내 및 예방수칙
감염병 의심 또는 확진시 - ①등교중지 ②병원진료 ③담임교사에게 알리기(등교중지 기간은 의사소견에 따름)
완치 후 등교 시 - 병명과 격리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등을 학교로 제출 시 출석인정

구분	내 용
주요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월~8월에 주로 유행 5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주로 발생 특히 발병 후 1주일간이 가장 전염성이 강함
병원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족구병의 주원인은 콕사키바이러스 A16형이며, 엔테로바이러스 71형 등
감염경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접접촉이나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전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감염자의 침, 가래,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, 수포(물집)안의 진물, 대변 등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수영장에서 전파 가능 전파의 위험이 높은 장소 : 가정(가족에 감염자가 있는 경우), 보육시설, 놀이터, 병원, 여름캠프 등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
주요증상 및 임상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신증상 : 발열, 두통 위장증상 : 설사, 구토 발진/수포(물집) : 주로 입, 손, 발, 영유아의 경우 기저귀가 닿은 부위 <div data-bbox="333 1469 1428 1693"> 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상경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처음 2~3일 동안 증상이 심해지고 아이가 잘 먹지 못하며 열이 발생하고, 3~4일이 지나면 호전되기 시작하여 대부분 1주일 안에 회복 수족구병을 앓았더라도 또 다시 재발 가능
예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★ 손 씻기의 생활화 ★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★ 수족구병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 ·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스스로 자가 격리하기

수족구병 Q & A

Q1.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수족구병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?

- 수족구병에 걸리면 가벼운 미열과 함께 혀, 잇몸, 뺨의 안쪽 점막과 발 등에 빨강게 선이 둘러쌀알 크기의 수포성 =발진이 생기며 이 발진은 1주일정도 지나면 호전 됩니다.
- 일부의 경우 손, 발의 물집이 없이 입안에만 포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러한 경우에도 수족구병과 경과를 동일하며 이러한 병은 **포진성구협염(herpangina)**이라고 합니다.
-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지만,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의 경우 드물게는 뇌수막염, 뇌염, 마비증상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면역체계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어린영아의 경우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.

Q2. 수족구병이 의심되거나 진단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?

- 수족구병이 의심될 때는 신속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.
- 진단받았을 때는 타인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자녀들이 수족구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, 학원 등에 보내지 않습니다. (등교중지)
- 집에서 격리 중 아이가 열이 높고 심하게 보채면서 잦은 구토를 하는 등 증상이 나빠질 때는 최대한 빨리 병원을 방문합니다.

Q3. 어떻게 감염이 되나요?

- 수족구 환자 또는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분비물(침, 가래, 코, 수포의 진물 등)과 직접 접촉 또는 이러한 것으로 오염된 물건(수건, 장난감, 집기 등) 등을 통하여 전파됩니다.
- 발병 1주일간이 가장 감염력이 강하고, 잠복기는 약 3~7일입니다.

Q4.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?

- 현재까지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.
-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익히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철저한 손씻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나 학원,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어른들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
2024. 7. 19.

전 주 용 흥 초 등 학 교 장